

■ 2025년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5. 7. 2(수), 10:30~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문태준, 송수연 전담심의위원, 김태용, 김건형 심의위원

2025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은 작년 첫 삼을 든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본사업은 문학을 업으로 하는 작가의 과반수가 겸업 종사하는 현황을 고려, 업무와 집필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간접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신청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한 작가를 대상으로 작가의 활동이력(40%)과 집필 계획의 충실성(60%)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심의위원 5인이 상기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사전전수검토를 진행하였고, 각자의 결과물을 합산, 현장 심의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꼼꼼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의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필 계획과 이용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를 살폈다. 집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원신청서의 경우, 2차 심의에서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어떻게 쓸 것이라는 세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양적 접근에 불과하며 질적인 실행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많은 심의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집필 계획이나 이용 계획이 부재한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역시 모든 심의위원이 동의하였다.

심의위원에 따라 신인이나 젊은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 경우도 있었고, 장르의 균형을 유심히 살핀 심의위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시선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올해는 시나 소설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를 넘어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참여해 반가웠다.

심을 마친 후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이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작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한 이후 지원 공간 이용 작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올해는 대상 공간을 보다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장래가 밝으리라 기대했다. 전업이든, 겸업이든 생활과 작업을 분리해 글을 쓰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작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다 많은 작가들이 본 사업에 지원, 창작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끝으로 작년 이용 작가 중 최소 이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작가들의 경우, 작년과 올해 공모 양식에서 미리 제시한 바와 같이 심의 과정에서 다소 불이익이 주어졌음을 밝힌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작가들을 생각할 경우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작가마다 작업 방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공간도 당연히 다를 터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목소리와 요구를 듣고 향후 계획에 반영, 보다 나은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작가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